

둘씩 둘씩 보내시며

말씀 / 마가복음 6:1-29

요절 / 마가복음 6:7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사건(1-6), 열두 제자를 전도훈련을 보내시고(7-15), 세례요한이 해롯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건(16-29)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지만 위축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복음 역사를 섬기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해롯의 불의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죽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의 죽음은 헛된 것처럼 생각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었지만 그의 메시지는 살아서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배척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어떤 자세로 복음 역사를 섬겨야 하는가 ‘전도자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훈련을 시키시며 구체적인 ‘전도의 원리’ ‘전도의 매뉴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이 시대에 대한 ‘전도자’로 부르시고, 우리가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시간 ‘전도자의 자세’ ‘전도의 원리’ ‘전도의 매뉴얼’ 등 전도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고, 이 시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랜만에 고향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고향은 항상 그림고 포근한 곳입니다. 예수님께 서도 오랜만에 고향에 오셨기 때문에 고향사람들에게 많은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처음에는 그들도 놀랐습니다. “와 말씀 정말 잘 전하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런 권능이 어찌됨이냐” 이쯤 되면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좀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네, 도대체 그런 능력이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것처럼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지?” “야, 우리 고향에서 인물났네” 하면서 축복해주고 배우고자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써 예수님을 평가절하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빨리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저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응 저 사람, 장성댁 아들이야, 화순댁 첫째 아들, 감나무집 아들이잖아~” 그런 식입니다. 또 예수가 목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직업을 보고 무시해 버렸습니다. 또 예수님의 형제들을 보니 지극히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즉 집안배경이 별 볼일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향사람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배척했다(스칸달리조)’는 ‘실족케 되다’, ‘걸려 넘어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 은혜가 되지 않고 저주가 되었다(벰전2:8)는 뜻입니다. 고향 사람이라 예수님을 더 깊이있게 알수 있는 기회를 고향사람이라는 인간적인 눈 때문에 놓쳐 버렸다는 뜻입니다. 불신 때문에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을 때만 능력을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무리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다면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예수님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말씀을 듣고 배울 기회를 놓쳐 버렸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서 소수의 병자만 고치시고 고향을 떠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5).

이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적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지, 편견에 사로잡히면 절대 안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한 여러 편견이 존재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신 4대 성인 중의 한 분이 다,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다, 너무 옛날 분이어서 오늘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분이다라는 편견을 갖기 쉽습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학자인 「C. S. 루이스」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그의 행적을 객관적으로 꼼꼼히 생각해 보면 인류 최대의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라고 하였습니다. 이 둘 중의 하나일 뿐 다른 가능성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또 예수님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믿지 않을려고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면 가장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1,2,3위가 있습니다. 1위는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을 도우며 허물을 다 보는 부목사님이시고, 2위는 사모님이시고, 3위는 그 자녀라고 합니다. 왜 이들이 말씀의 은혜를 못받는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것입니까? 인간적인 허물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목사이고, 사모이고, 자녀이면 얼마나 가까워서 깊이 말씀을 듣고 궁금하면 허물없이 물어보고 궁금증을 풀어서 은혜를 누구보다 더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면 축복이 저주가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면 안되겠습니다. 우리 중에도 보면 목자 자녀분들도 계시고, 어릴때부터 예수님에 대해 많이 듣고 자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성경을 통해 계시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생각해 보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예수님은 이런 사람’ 이라고 너무나 빨리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나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 모임은 그 무엇보다 성경공부를 통해 감추어진 보석과 같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체계적으로 은혜롭게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미리 단정하기에 앞서 궁금하고 의문이 되는 것들은 묻고 답하여 성경안에서의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며 성경과 지혜에서 자라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고향과 친척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실 때 낙심이 되셨을 것입니다. 우리 목자님들도 신앙생활을 하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보통 집에서 팽박을 받을 때 마음이 힘들어지고 목자의 삶에 회의를 느끼는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나의 영적인 모습은 인정해주지 않으시고 ‘니 앞가림은 하고 다니냐?’ ‘취직은 언제 하나?’ ‘결혼은 하긴 하나?’ 등 팽박할 때 하나님을 위해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 보이고,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인가? 맨붕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절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예레미야서에 나온 말씀인데 예레미야도 자기 고향에서 가족에게 배척당했음을 성경에서 기억하시고(렘12:5-6) 위축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촌으로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6).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가르치기만 하셨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직접 전도하도록 하셨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 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서는 지금까지 제자들을 부르사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병을 치료하실 때도, 죽은 자를 살릴 때도, 풍랑이는 배 위에서도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도 그들을 변호해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쫓쫓 따라 다니는 추종자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겨우 옆에서 예수님 시종이나 드는 비서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많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내어 보내시고자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내어 보내심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하셨습니다(마1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어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마가복음 3: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로 세우신 두 번째 이유가 전도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 복음역사를 섬길 복음의 용사가 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대장부가 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성된 믿음은 상당히 이론적일 수 있습니다. 머리 속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잘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답은 00에서 00으로 내려오는 길이라고 합니다. 00에서 00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30cm도 안됩니다. 그러나 이 짧은 거리가 가장 멀게 느껴집니다. 머리에서 배운 지식이 가슴으로 믿고 행해지기 까지가 어찌 그리 어려운지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머리에서만 맴돌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는 믿음, 몸으로 체험하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2: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 복음을 전해봐야 합니다. 성경선생으로서 1:1을 해봐야 합니다. 애도 핏덩이를 직접 낚아서 길러봐야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육학책 많이 읽고 아동교육학 박사가 되어도 사랑이 무엇인지 부모마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의사도 아무리 두꺼운 의학책 달달 외워도 잘 모릅니다. 실습을 통해서 직접 환자들을 진료해 봐야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군인도 실전에 참여해 봐야 좋은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현장에 나가서 사단과 치열한 전투를 해 보지 않으면 파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영적인 민방위, 예비군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맨날 앉아서 이론적인 율법논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것이 일인가 아닌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적법인가 불법인가? 안식일에 몇 킬로그램의 짐을 들면 죄인가? 몇 미터 가면 죄인가? 그런 쓸데없는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통해서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론과 머리는 발달해 있는데 가슴이 식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박제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머리만 큰 ET 신앙인들이 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영적전쟁을 치루고 거기서 어두움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양들의 생명을 구출하는 복음의 투사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말하기를 “전도는 어명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옛날에 신하들은 왕이 사약을 내려도 “성은이 망극하여이다”하며 받아 마셨다고 합니다. 하물며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인데 전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사도바울은 디모데후서 4: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였습니다(딤후 4:1,2). 저희들이 어명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서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훈련을 보내시며 가르쳐 주신 ‘전도의 원리’ ‘전도의 매뉴얼’이 무엇입니까? 전도는 좋은 것이지만 전도를 나갔다가 문제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매뉴얼을 잘 숙지하고 전도현장으로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저도 소방에서 근무하지만 위험한 현장일수록 매뉴얼을 잘 숙지하고 활동을 해야 다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의 매뉴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둘씩 둘씩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7절을 다시한번 보십시오.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내어 보내실 때에 둘씩 둘씩 내어 보내셨습니다. 둘씩 보내신 먼저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 가는 것입니다. 구약 신명기(19:15)에 보면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2~3명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2명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둘씩 보내는 것은 혼자 개인플레이 하지 말고 동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혼자 하다보면 지치기 쉽습니다. 어떤 목자님은 두사람이 같이 할 시간에 각자 나뉘어서 하면 2배는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며 혼자 열심히 전합니다. 그러다가 상처를 받고는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전도의 소원을 상실해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리같은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동역자와 함께 하다보면 힘이 됩니다. 서로 용기를 얻고 배척받을 때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를 줄일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다 막히면 다른 사람이 얼른 지원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둘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고 지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역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가면 빈둥거릴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려고 갔다가 갑자기 친구에게서 전화오면 전도하다 말고 친구 만나러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사람이 같이 가면 친구 만나러 가더라도 같이 전도를 마치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동역의 역사요 합심의 역사입니다. 누가복음 10:1절에서 70명을 보낼때도 둘씩 둘씩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8: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만이라도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전도서 4:9-12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에 동역자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귀한 믿음의 친구들,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디엘 무디(미국, 1837-1899, 2억명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수십, 수백만명을 회심케 함)에게는 생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디는 잘 알지만 생키는 생소한데요. 생키는 찬양사역자로 무디목사가 예배하기 전 찬양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사람들의 심령을 뜨겁게 달구어 놓으면 무디가 ‘열정과 확신에 찬 설교’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생키가 없었다면 무디의 전도열매는 그렇게 크지 못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UBF 역사도 이사무엘 선교사님에게는 머더 배리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역사를 잘 동역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상대방을 귀히 여기고 존경해야 합니다. 한 목자님이 배사라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오셨을 때에 이렇게 여쭙 보았다고 합니다. “이 사무엘 선교사님은 개성이 뚜렷하신데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잘 동역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배사라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몇 번 싸운 적은 있지만 저는 Dr. Lee를 깊이 존경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허물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 나를 잘 동역해 줄 사람을 찾다보면 죽을 때까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믿음의 친구들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들의 장점을 보고 존경함으로 동역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둘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7b)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내어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나갈때에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가만히 앉아 있는 자에게 권능을 주시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자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전쟁터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실탄을 제공하듯이, 복음의 영적 전장에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서는 권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서는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가도록 방향을 주셨습니다.

8,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전도여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식도 필요하고 갈아입을 옷도 돈도 필요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오직 신만 신고 지팡이만 들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러 바로 궁에 들어갈 때에 그의 손에는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그 지팡이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에 모세는 지팡이만으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에 모세는 지팡이든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사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여유가 있다고, 시간이 많다고 전도 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대 UBF센터가 처음 지어지고 봉헌예배를 드릴 때 배사라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건물이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게 건축해서 막 봉헌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팩트폭격을 하시다니~ 그러나 사실 맞는 말씀 아니십니까?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있어서 외적인 조건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외적 조건이 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조건이 넉넉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고 내 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은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필사적인 자세로 주님께 매달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으로 앓은뱅이에게 전도하였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으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도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지팡이, 기도의 지팡이를 굳게 잡고 나아갈 때에 홍해같은 제자양성의 문이나 선교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반석같이 딱딱한 양들의 심령이 터져서 샘물이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넷째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볼때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고향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영접치 않을때에 상처 받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 단순하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2,13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귀신이 쫓겨나며 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스스로 놀랐을 것입니다. “와, 우리가 이런 일을 해 내다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인간적인 생각, 복잡한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죄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귀신들이 쫓겨나며 마음의 병,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7부 가운데 12명의 제자양성 역사와 50명대 주일예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려한 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미려할 정도로 단순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할 때에 질그릇같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아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해롯왕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제자들은 해롯궁에 가서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온 마을과 촌으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자 그 여파가 해롯궁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에 전도에는 직접전도가 있고 간접전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그것이 진동을 일으켜서 온 세상을 흔들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17-29절은 의인 세례요한이 불의한 헤롯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다가 잡혀서 목 베임을 당한 사건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이런 요한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찌 보면 헛된 죽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생일잔치에서 헤로디아 딸이 춤을 추고 그에 대한 대가로 요한의 목을 요구했습니다. 한 소녀의 춤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장난거리로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이 전한 메시지 ‘회개하라’는 말씀은 살아서 헤롯가운데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다시 ‘회개하라’고 복음을 선포하자 두려워하며 떨어졌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가 전한 메시지, 말씀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통해 더 강력하게 증거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를 마가복음 독자들을 위해 길게 기술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은 AD 65년 경 로마 네로 황제 통치 기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로마교회는 불같은 시련과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을 저버리는 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황제 숭배를 거절하여 옥에 갇히거나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사자 밥이 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때문에 혹은 신앙 때문에 굳이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가? 죽으면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사건과 세례 요한의 죽음은 큰 위로와 방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는데, 위대한 선지자 세례요한도 목이 베어 갱반그릇에 담겨졌는데, 나같이 허물 많고 부족한 자는 어떻게 죽음을 당해도 감사한 일이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 중에는 옥에 갇혀서도 위축되거나 신앙을 타협하기 보다는 죽을 각오를 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찬양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로마 시민들은 ‘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생각하게 되었고 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자 신자들을 옥에 가두거나 원형 경기장에 던져 넣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거나 순교를 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의인은 세상에서 고난당하지만 두려워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진정한 ‘전도자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으로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 디카프리오 이야기는 허구입니다. 그러나 악단장 윌라스 하틀리라는 사람은 실존인물입니다. 그는 승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악단을 데리고 탑승하였습니다. 그러나 배가 잘 나갈 때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의 연주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가 암초를 만나 침몰하기 시작했을 때에 사람들은 그들의 연주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진정 소원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는 단원들과 찬송가를 연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이 소망입니다” 망망대해 북극의 바다에서 배가 침몰할 때에 무엇이 희망이겠습니까?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호화 유람선을 타고 인생을 엔췌오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그들은 앞으로 마냥 좋은 일만 펼쳐질 것처럼 태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저 이들의 귀를 간지럽게 하고 그들의 혼드는 몸짓에 멜로디나 맞춰주는 밴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배가 언젠가는 마지막을 만난다고, 구원의 방주가 필요할 때가 온다고 외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쾌락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전도자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을 향하여 구명정을 던지는 심정으로 전도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길 기도합니다.